

지역 매아리



김성수 전 부안군수 후보

민주당 부안지역 승리 진두지휘

김성수 민주당사무소 총괄 선거대책 위원장이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승리를 진두 지휘하게 됐다

김 전 후보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안지역정당사무소에서 김춘진 전 전북도 당위원장과 오세웅 부안 군의회 의장,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선거 부안지역정당사무소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성수 전 후보는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6·13 지방선거에서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및 전북도의회 의원, 부안 군의회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더욱이 오는 30일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후보가 부안을 방문해 모든 후보들과 함께 부안시장을 방문, 지역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며 31일에는 모든 후보와 운동원 및 지지자들이 터미널 사거리에 모여 지방선거 필승 출정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는 "한때 경쟁자였던 김성수 전 후보의 용기 있는 결단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군 부안면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 연내 마무리 박차

고창군이 부안면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올 연말 최종 준공을 목표로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안면 봉암리, 선운리, 송현리의 해안가와 인접한 상습침수구역 154ha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배수문 7개소, 배수로 8조 6.4km를 확장·정비하고, 저지대 논 2.43ha의 매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을 95%를 보이고 있다.

건설도시과 박호인 과장은 "당초 준공 계획이었던 2020년 보다 2년 가량을 앞당겨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인 농경지 침수예방은 물론 영농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운영

고창군, 불법 중개 행위 차단 · 투명한 문화 정착
컴퓨터 · 스마트폰 등 이용 · 개인정보 암호화 지원

고창군이 투명한 부동산 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종이계약서와 도장 없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며, 특히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

자 부여신청 등이 자동으로 처리돼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하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여부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심

거래도 지원된다. 더불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정도 절감할 수 있다. 군 종합민원과 김공예 과장은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의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 등의 장점이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알리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영농철 민·관 합동 농촌일손돕기 추진

부안군, 6월 22일까지
각 읍·면사무서
지원인력 작업 지도



부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공무원, 군인, 기관·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농촌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부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공무원, 군인, 기관·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농촌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내달 22일까지 공무원, 학생, 군인, 기관, 단체와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호 대상 농가, 과수·채소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농업재해 피해농가 등 적기 영농하기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은 각 읍·면사무소에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사전에 일손돕기 대상농가와 작업내용 등을 파악해 인력을 알선하고 지원인력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작업을 지도하고 있다.

지원 농 작업은 모내기, 과실 수

기, 봉지 씌우기, 오디 수확, 마늘·양파 수확, 콩·감자·옥수수 등 파종, 지주 세우기, 병해충 방제, 비닐하우스 철거, 폐비닐 수거 등 다양하다.

지난 24일 백산면사무소, 보건소, 해양수산과 등 30여 명이 참여한 백산면 대죽리 최상정씨 농가 사과과목과 작업을 시작으로 농촌일손돕기를 펼치고 있다.

부안군 직원들은 작업도구와 도시락 등은 직접 준비해 농가의 부

담을 없애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농가주,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의 사전교육을 실시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농촌일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 사회기관·단체, 군부대, 군 산하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정읍시는 28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머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강사로 활동 중인 김명륜씨가 강사로 나섰다. 김 강사는 이날 "폭력 예방을 넘어 성 인지 사회를 만드는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교육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폭력 예방교육의 의의와 젠더 폭력, 폭력의 중첩, 통합성과 상호

연관성 등을 강의와 동영상 활용해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은 물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4대 폭력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도진 후보, 캠프 참모진 사칭 식당 허위주문 피해 주의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에 알 수 없는 신원미상의 남성이 정도진 정읍시장 후보자의 참모진을 사칭하여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번 정읍시장 선거에서 정읍지역 유권자들은 많은 실망과 분노를 표하고, 공식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는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정도진 정읍시장후보측은 "최근 한 남성이 정도진후보 캠프의 참모진이라고 사칭하여 정읍시내 식당들을 돌며, 식사 주문 후 금액을 지불하지 않

거나, 심지어 현금까지 요구하여 식당 사장님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전달해왔다. 피해를 입은 업소는 정읍시내에 위치한 청수식당, 황금식당, 마산이구찌, 명품한우 갑비탕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업소는 정도진후보의 참모진이라고 사칭한 한남성이 음식 주문을 하여 모든 음식을 준비하였으나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10만 원상당부터 50만원상당 까지 식사비를 손해 입었다고 전해졌다.

정도진 정읍시장후보는 "피해를 입은 자영업(식당) 사장님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들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시민 모두 건강한 선거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강광 정읍시장 후보, '생활체육 활성화' 약속

강광 무소속 정읍시장 후보가 최근 부쩍 많아진 생활체육현장을 찾아 체육과 관련한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민선 4기 때에도 전국 단위의 대회를 10회 가까이 치러내면서 정읍의 생활체육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었다.

강광 후보 자신이 스포츠맨이다. 축구와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은 지금도 직접 선수로 활동하며 시민들을 이끌고 있다.

바둑은 아마 6단의 실력이고, 태권

도는 공인 6단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만능 스포츠맨이다.

최근에도 비가 내리는 축구경기장을 찾아 정읍의 70대 원로 클럽의 단장으로서 후배들의 경기 장면을 참관하며, 정읍 축구의 발전을 기원했다.

강광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축구장을 2면으로 늘리며, 전전후 축구장, 테니스장, 그라운드골프장, 수영장, 수상용 청소년체육관도 만들고, 북면 체육관 등 각 읍면동의 체육시설도 늘려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체육시설 대관료는 철폐하고, 생활체육 동호인클럽에 대해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상길 정읍시의원 후보, "정읍을 행복1번지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정읍시 사전선거 (초산동,시기동, 상교동)에 출마하는 이상길 시의원후보(1-나)가 정읍선관위에 공식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본격 선거활동에 큰 보폭을 보인 이상길 후보는 "고향에 터를 잡고 살아 가는 청년으로서 출마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지역발전에 헌신하고자 시의원 후보에 출마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후 "우리 지역을 '정읍 행복1번지'로 만드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으며 모든 일을 시민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눈으로 봉사하고 젊은 나이 만큼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직접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 시의원이 일 잘하면 지역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시의회의 의정문화는 변화해야하며 생산적인 의회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이상길 후보는 "견제나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주말위원회 또는 야간 의회 등을 통한 적극적이며 직접적인 현안 대처 등의 의정상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시장의 견제와 감시에는 충실하되 이유 없는 견제로 행정력을 낭비를 줄임은 물론 기초의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 시민과 지역민을 위해 함께 웃고 울며 노력하는 것이 참된 역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